아픈 역사에 담긴 '종교화합' 가르침

뮤지컬 '주어사' 11월 28일 서울서 공연

수원 아리담문화원 주최
제스트컴퍼니 연출 맡아
마가 스님 등 4대 종교
대표패널 화합 토크쇼도

경기도 광주시 소재 천진암과 주어사지는 한국 가톨릭계의 발상지로 여겨진다. 1779년(정조 3) 권철신을 비롯해 정약전 · 김원성 · 권상학 · 이총억 등이 강학을 펼친 곳으로, 이들은 한역서학서를 통한 가톨릭 교리를 검토하며 신앙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 신자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해준 스님들이 관군에 의해 처형당한 일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일로 천진암과 주어사는 폐사의 아픔을 겪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스님과 가톨릭 신자들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동행이 현대 후손들의 성지 개발 갈등으로 빛바랬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최근 이 같은 역사의 가치를 되새기고, 종교화합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불교계 뮤지컬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수원 아리담문화원(원장 송탁)은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화합의 역사를 노래하는 '뮤지컬 주어사-생명이 중한디'를 공연한다. 아리담문화원은 지난해 '주어사의 올바른 역사 계승을 위한 심포지엄 및 화합 한마당'을 개최하며 이 뮤지컬을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약 45분간 펼쳐지는 뮤지컬 주어사는 천진암과 주어사지 관련 역사자료와 구술 등을 바탕으로 창작됐다. 주어사의 역사와 종교화합의 의미를 대중에게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다 떠오른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공연은 아리담문화원 산하단체로 등록한 제스트컴퍼니가 맡아 가톨릭신자들이 사찰에 몸을 의탁해 천주학을 연구하고, 이를 염려한 조정이 관군을 파견해 스님과 관련자들을 박해하는 모습 등을 연출한다.

아리담문화원장 송탁 스님은 이웃종교와 이웃문화에 대한 배타성 극복을 이번 공연의 중요 가치로 꼽았다. 스님은 "종교간 갈등이 심각한 오늘날, 주어사 역사의 올바른 계승은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 그리고 화합의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현대 종교가 지향해야할 초종교화된 종교의 가치를 표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뮤지컬 주어사는 길지 않은 공연이지만 주어사 복원이 단순한 공간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종교 문화가 공존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장이었다는 점, 주어사 스님들의 대자비심과 희생정신, 주어사가 최초 이웃종교를 향한 열림의 장이었던 사실, 이웃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제거 등 현대사회 종교에 많은 메시지를 던진다.

아울러 뮤지컬 끝난 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이웃종교 화합을 위한 토크쇼'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과 이명권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민학기 용주사 신도회장 등 4대 종교인이 참여한다.

불교 대표인 마가 스님은 "주어사 스님들은 조건 없는 자비실천으로 이교도들을 보호해줬지만 그 결과는 죽음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조화로운 세상이 평화의 기반이 되고, 이 위에서 종교화합도 가능하단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뮤지컬 주어사의 한 장면. 가톨릭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주어사에 침입한 관군과 스님들이 대립하고 있다.
아리담문화원 제공



최정인 궁중자수장의 작품 '25조 가사'

佛心, 한땀 한땀 자수로 꽃 피우다

해인사성보博, 기획특별전

한땀 한땀 농인 전통 자수에 담긴 불심(佛心)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선조)은 오는 11월 26일까지 '불심, 자수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2005년, 2013년 대통령상 수상 이력이 있는 최정인 궁중자수장의 개인작품전으로 불교자수, 병풍자수, 흉배자수 등 47여 점의 다양한 자수 작품들이 일반인에게 공개 · 전시된다.

특히 전라남도 대원사 시왕탱화(전남 유형문화재 제266호)를 모본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수놓은 시왕도 10폭과 한국자수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후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자수가사(보물 제654호)를 재현한 작품은 최 궁중자수장의 역작이다. 또한 오늘날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옻칠장에 자수로 장식한 목가구, 자수 브로치 등 생활공예 자수 소품도 함께 전시된다.

신성민 기자

청년불자 작가들의 솜씨 뽐낼 場 열린다

12월까지 BAF공모전

2018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청년불자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BAF청년작가공모전'을 개최한다. 'BAF청년작가공모전'은 2016년과 2017년 열린 청년불교미술작가전이 확대된 것이다.

이번 공모전은 '불교철학'을 주제로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창의적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공모분야는 △평면회화 △입체 △공예 △미디어 등으로 만 35세 이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해외에 거주 중인 청년작가나 외국인 작가도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홈페이지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12월 31일까지 공식 이메일(baf@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내년 1월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02)2231-2013

노덕현 기자

국난극복 '고려시대 나한도' 첫 공개

동국대박물관, 12월 8일까지 나한 특별전

13c 몽골침략 막기 위해
나한 신통력에 의미 담아



동국대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되는 고려시대 오백나한도 중 원상주존자. 김의인(金義仁)이 제작 뒷일을 맡았다. **동국대박물관 제공**

고려시대 무차별적인 몽골의 침략에 저항하고자 불력(佛力)을 빌어 제작한 나한도 4점이 처음 공개된다.

동국대박물관(관장 정우택)은 12월 8일까지 특별전 '나한-깨달음에 이른 수행자'를 개최한다. 나한은 산스크리트어 Arhat의 한자음역인 '아라한'의 줄임말로 이상세계에만 존재하는 불보살과 달리 실존했던 수행자이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구제하라는 임무를 위임받은 제자를 뜻한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나한제를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몽골의 침입을 받았을 때 국난극복을 위해 500폭의 나한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동국대박물관은 동국대 개교 111주년을 맞아 청자로 만든 나한상을 비롯해 다양한 나한 작품을 전시한다. 이 중에서도 1235~1236년 제작된 나한도 중 국내 개인이 소장한 4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박물관 측에 따르면 이 나한도는 몽골 침입을 받은 고려가 나한의 신통력으로 국가를 지키고자 제작한 500폭 가운데 일부로 현재 한국, 일본, 미국 등에 10여 점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귀중한 그림이다.

삼성미술관 리움이 소장한 오백나한도는 화기는 없지만 이곽파(李郭派) 서풍을 따르는 점을 미뤄볼 때 일군(一群)의 고려시대 수묵 오백나한도의 하나로 짐작된다. 제작시기는 1235년 또는 1236년으로 추정된다. 개인 소장의 오백나한도는 화기가 남아 있어 을미년 10월 즉 1235년에 그려졌으며, 김의인(金義仁)이 제작 뒷일을 맡았다. 특히 현존 오백나한도 중 유일하게 '인병속감(隣兵速減)'이란 문구가 쓰여 국난극복의 목적을 입증해주는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전시되는 보물1882-1호 십육나한도 역시 화기를 통해 같은 시기 오백나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백나한도와 별도로 십육나한도를 그렸다는 근거자료이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외에 미국 호놀룰루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 석가설법도도 선보인다. 이 그림은 결가부좌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8구의 보살과 10대 제자를 배치했다. 화기는 남아 있지 않지만 존상 형상과 표현기법 등으로 미뤄볼 때 16세기 중반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10대 제자와 청법자가 그려진 유일한 금선묘 그림이자 완성도 높은 불화로 평가받는다. (02)2260-3722

윤호섭 기자

적벽으로 상징된 무한 향한 시선들

불일미술관, 박은신 초대전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은 11월 28일까지 제2전시관에서 박은신 작가의 초대전 '고요의 바다' 전시를 개최한다. 홍익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박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자신만의 오브제를 통하여 작품을 완성시키는 작가다.

초월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조우에서 시작되는 박 작가의 작업에는 두 가지 시선이 교차된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도약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 무한을 향한 시선. 이것이 작가에게는 우주로, 붓다로, 적벽으로 상징된다. 또한 현실을 인식하는 시선은 떨어지거나 흩날리는 꽃잎,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를 통해 드러난다.

박 작가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낙화는 비상으로, 소멸은 삶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신성민 기자



수법장엄일체
미단단집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